

《전국책》 中の ‘들다’ 어휘 풀이 및 역사적 변천에 관한 小考

— 선진시기부터 위진남북조시기를 중심으로

黃信愛*

◁ 목 차 ▷

- I. 들어가는 말
- II. 《전국책》 中の ‘들다’ 어휘 풀이 및 비교분석
- III. ‘들다’ 어휘 역사적 변천에 관한 小考
- IV. 나오는 말

I. 들어가는 말

한어사 어휘연구에서 텍스트에 반영된 어휘를 고찰하는 방식은 가장 보편화된 연구방식이다. 텍스트에 반영된 어휘를 고찰함으로써 텍스트에 담겨 있는 어휘의 의미뿐 아니라, 텍스트가 반영하고 있는 각 시기의 의미까지도 유추해낼 수 있다. 최근 한어사 어휘연구는 한결음 더 나아가 텍스트에 반영된 어휘의 역사적 변이를 고찰하는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는데, 이는 시대에 따른 어휘 구성원의 의미변화를 알 수 있을 뿐 아니라, 의미의 변화를 통해 구성원간의 의미장 이동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본문에서는 《전국책》에 나타난 ‘물건을 드는 행위’, 즉 ‘들다’ 행위와 관련된 어휘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 구성원들이 선진시기부터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르기까지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논문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전국책》 中の ‘들다’ 어휘에 대해 그 의미와 특징을 살피고, 아울러 이들 구성원들이 각 시기를 거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시기는 앞서 말했듯이 선진시기부

* 서울신학대학교 중국어과 조교수

터 위진남북조 시기까지 우선 고찰하였으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현대까지의 변화 과정 및 의미소 변화에 따른 어휘의 의미장 이동에 대해서도 고찰해볼 계획이다.

본문의 문헌자료는 북경대학 CCL¹⁾ 고대중국어 데이터 베이스 목록을 참고하였다. CCL에 소개된 자료 중, 본문에 주로 인용한 자료는 周代: 《시경》 / 春秋時代: 《국어》, 《논어》, 《좌전》 / 戰國時代: 《한비자》, 《맹자》 / 西漢: 《전국책》, 《사기 열전》 / 東漢: 《논형》, 〈고시십구수(古詩十九首)〉, 〈공작동남비(孔雀東南飛)〉 / 六朝: 《세설신어》, 《문심조룡》, 시문류(曹操詩 등)이다.

본문에서는 어휘의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각 시기별로 소개된 자료를 중심으로 다시 선진(周代, 春秋時代, 戰國時代)-양한(西漢, 東漢)-위진남북조(六朝)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전국책》에 드는 행위와 관련된 동사로는 ‘提’, ‘舉’, ‘執’, ‘挈’, ‘揭’가 보인다. 이들은 《전국책》에서 ‘들다’의 의미 외에 각각 다른 의미항을 지니고 있다. 예를 들면 “舉”는 《전국책》에서 ‘들다’ 의미 외에 ‘(군사를) 일으키다’, ‘점령하다’, ‘추천하다’ 등의 의미를 지니고, 명사로써 ‘행동이나 행동거지’의 의미도 지닌다.²⁾ 어휘연구는 의미항을 중심으로 연구되어야 의미의 변화나 발전상황을 알 수 있으므로 본문에서는 각 어휘의 ‘들다’에 해당하는 의미항만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음을 미리 밝혀둔다.

II. 《전국책》 中の ‘들다’ 어휘 풀이 및 비교분석

아래 본문에서는 《전국책》 ‘들다’ 어휘에 대해 의미와 특징을 살펴보고, 아울러 각 어휘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어휘 간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1. 《전국책》 中の ‘들다’ 어휘 풀이 및 특징

《전국책》 중 ‘들다’의 의미를 지닌 어휘는 ‘提’, ‘舉’, ‘執’, ‘挈’, ‘揭’이다.

1) 北京大學漢語語言學研究中心.

2) 《戰國策》辭彙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참조.

1) 提

‘提’는 《전국책》에 총4회 출현하는데, 그중 ‘들다’의 의미로는 2회 사용되었다.

- [예1] 夫鼎者, 非效醯壺(垂+瓦)耳, 可懷挾提挈以至齊者. <東周策>
(무릇 정(鼎)이라고 하는 것은 식초주전자나 간장단지처럼 가슴에 품거나 끼거나 들고서 제나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예2] 今提一匕首入不測之強秦. <燕策三>
(지금 칼 하나를 들고 예측할 수 없는 강한 진나라로 가려 한다.)

[예1]에서 ‘提’는 동의어인 ‘挈’와 같이 쓰여 ‘同義連文’을 이룬다. 이 시기에 ‘提’는 ‘들다’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자주 ‘挈’와 같이 쓰인다.³⁾ 《전국책》에서 ‘提’가 ‘들다’의 의미로 쓰일 때는 [예2]와 같이 뒤에 가볍게 들 수 있는 사물이 주로 놓인다. 《전국책》에서 ‘提’ 뒤에 사람이 올 경우, ‘~에게 던지다’의 의미를 지닌다.

- [예3] 是時, 侍醫夏無且, 以其所奉藥囊提軻. <燕策三>
(이때 어의 夏無且가 그가 가지고 있던 약낭을 형가에게 던졌다.)
- [예4] 遂拔以擊荊軻, 斷其左股. 荊軻廢, 乃引其匕首, 提秦王, 不中, 中柱. <燕策三>
(그리하여 (칼을) 뽑아 형가를 공격해 왼쪽 다리를 잘랐다. 형가가 중상을 입고 비수를 들어 진왕에게 던졌으나 맞히지 못하고 기둥에 맞았다.)

[예3]을 보면 어의 하무차가 형가에게 약낭을 던지는 내용이고, [예4]는 형가가 진시황에게 칼을 던진 내용으로, 모두 ‘提’ 뒤에 사람이 놓여 ‘~에게 던지다’의 의미를 지닌다.

2) 擧

‘擧’는 《전국책》에 총126회 출현하는데, 그중 ‘들다’의 의미로는 11회 사용되었다.

- [예5] 右擧劍將自誅, 臂短不能及, 銜劍徵之於柱以自刺. <秦策五>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찔러 죽으려 하였으나, 팔이 짧아 미치지 못하자

3) 아래 ‘提’의 역사적 변천 참조.

- 칼을 물고 기둥으로 내달아 스스로 목을 찢었다.)
- [예6] 臨淄之途，車轂擊，人肩摩，連衽成帷，舉袂成幕，揮汗成雨。〈(齊策一)〉
(임치의 거리는 (번화하여) 수레가 서로 부딪치고 (걸가는) 사람들의 어깨가 닿으며, 옷깃은 이어져 휘장을 이루고, 소매를 들면 장막을 이루며, 땀을 뿌리면 비가 오듯 합니다.)
- [예7] 今何舉足之高，志之揚也？〈(齊策三)〉
(지금 그대는 왜 그렇게 발을 높이 들어 걸으며 의기양양해 하는가?)
- [예8] 僞舉罔而進之，麇因得矣。〈(楚策三)〉
(거짓으로 그물을 들고 나아가면 미륵은 잡힌다.)
- [예9] 今謂楚王：“苟來舉玉趾而見寡人，必與楚爲兄弟之國，必爲楚攻韓、梁，反楚之故地。”〈(趙策一)〉
(이제 초왕에게 이르기를 “참으로 (그대가) 귀한 발걸음을 해서(옥지를 들고 와서) 과인을 만나면 반드시 그대 초나라와 형제국이 되어 초나라를 위하여 틀림없이 한나라, 양나라를 공략하여 초나라의 옛 땅을 되돌려주겠다”라 하였다.)
- [예10] 夫膠漆，至黏也，而不能合遠；鴻毛，至輕也，而不能自舉。夫颺於清風，則橫行四海。〈(趙策三)〉
(무릇 아교와 옷질은 강한 접착력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멀리 있는 것을 붙이지는 못합니다. 또 鴻毛는 지극히 가벼운 것이나 스스로를 들어 올리는 못하고, 무릇 맑은 바람에 흩날려야 四海를 가로질러 떠다닐 수 있습니다.)
- [예11] 梁王魏嬰觴諸侯於範臺。酒酣，請魯君舉觴。〈(魏策二)〉
(양나라 왕 魏嬰이 範臺에서 제후들에게 술을 권했다. 술기운이 오르자, 노나라 군주에게 술잔을 들어 권하였다.)
- [예12] 而嚴仲子舉百金爲親壽。我雖不受，然是深知政也。〈(韓策二)〉
(그리고 엄수는 백금을 내어(들어) 어머니의 장수를 빌어주었다. 내가 비록 받지 않았으나 그는 나를 깊이 알아주었다.)

《전국책》에 출현한 ‘舉’는 ‘칼, 소매, 신체부위(발), 그물, 술잔, 재화’ 등 매우 다양한 목적어를 갖는다. [예5]를 보면 큰칼에 해당하는 검(劍)을 드는 행위에 대해 ‘舉’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단칼인 ‘匕首’를 들 때 ‘提’를 사용한 것([예2])과 구별되는 부분이라 하겠다. 또 ‘提’는 한손으로 드는 행위가 보편적인데 반해, ‘舉’는 《說文》에 ‘對舉也.(미주 들다)’라 하여 본의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손으로 드는 행위에 많이 쓰인다([예8]). ‘舉’는 손으로 물건을 드는 행위에도 사용되지만, 때론 사

람의 신체부위를 드는데도 사용된다. [예7]과 [예9]를 보면 발을 들어 걷는 행위에 대해 ‘擧’를 사용하고 있다. [예11]과 [예12]를 통해 술잔이나 금 등 재화나 보물을 드는데도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3) 執

‘執’는 《전국책》에 총20회 출현하는데, 그중 ‘들다’의 의미로는 3회 사용되었다.

- [예13] 梁王身抱質執璧，請爲陳侯臣，天下乃釋梁。〈秦策四〉
(양왕(魏惠王)은 몸소 예물을 안고 (손으로) 옥을 들고, 陳侯(齊王)의 신하가 되겠다고 빌고 나서야 천하가 양나라를 풀어 주었습니다.)
- [예14] 吾被堅執銳，赴強敵而死，此猶一卒也，不若奔諸侯。〈楚策一〉
(내가 단단한 갑옷을 입고 예리한 칼을 들고 강적에게 뛰어들어 죽으면, 이는 하나의 병졸이 하는 일과 같을 뿐, 제후들에게 가서 구조를 청하는 니만 못하다.)
- [예15] 齊閔王將之魯，夷維子執策而從。〈趙策三〉
(제민왕이 장차 노나라에 갈 때 夷維子가 채찍을 잡고(들고) 따랐습니다.)

《전국책》 중의 ‘執’는 ‘들다’의 의미장안에서 ‘손으로 물건을 붙잡아 드는 행위’에 해당한다. 이는 단순하게 사물이나 사람을 붙잡는 행위와는 구별되는 행동으로 두 의미항간에 구분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 [예16] 襄子如廁，心動，執問塗者，則豫讓也。〈趙策一〉
(양자가 변소에 가다가 이상한 예감이 들어 붙잡아서 변소 바르는 자가 누구인가 물었더니 예양이었다.)
- [예17] 請男爲臣，女爲妾，身執禽而隨諸禦。〈韓策三〉
(〔월나라의〕 남자는 (오나라의) 노복이 되고 여자는 비첩이 되고 자신은 스스로 새를 잡아 (예물로 바쳐) 오왕의 시종이 되어 따르겠다고 하였다.)

[예16]에서의 ‘執’는 사람을 붙잡는 행위이고, [예17]은 새를 잡는 행위로 모두 ‘사물을 드는 행위’와는 구별된다. [예13]~[예15]의 ‘執’는 손으로 ‘옥’, ‘칼’, ‘채찍’

을 붙잡음과 동시에 드는 행위로 이어지므로 이를 ‘들다’ 의미장 안의 구성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전국책》 안의 ‘執’는 ‘사물을 손으로 단단히 붙잡아 드는 행위’를 일컫는 어휘라 볼 수 있다.

4) 挈

‘挈’는 《전국책》에 8회 출현하고 ‘들다’의 의미로는 ‘4’회 사용되었다.

- [예18] 夫鼎者，非效醢壺醬(垂+瓦)耳，可懷挾提挈以至齊者。〈東周策〉
(무릇 정(鼎)이라고 하는 것은 식초주전자나 간장단지처럼 가슴에 품거나 끼거나 들고서 제나라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 [예19] 人有言：“挈瓶之知，不失守器。”〈趙策一〉
(사람들이 “물병을 들 줄 아는 지혜만 있어도 그릇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다”라고 말한다.)
- [예20] 臣戰載主契國以與王約，必無患矣。若有敗之者，臣請挈領。〈秦策三〉
(저는 싸움에 나갈 때 (전차에 선군의) 위패를 신고 국가에 맹세하고 왕과 조약을 맺으니 분명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만약 전쟁에 지면 신은 목을 들고 오겠습니다.)
- [예21] 有二人挈戈而隨其後者。〈中山策〉
(어떤 두 사람이 창을 들고 그 뒤를 따르는 것이었다.)

《전국책》 중의 ‘挈’는 ‘들다’의 의미⁴⁾로 사용될 경우, ‘提’와 비슷한 성향을 보인다. [예18]과 [예19]를 보면 식초주전자나 간장단지와 물병 등 비교적 가벼운 물건을 들 때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20]을 보면 신체부위인 목을 손으로 드는 행위에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挈’ 뒤에 놓이는 신체부위는 ‘擧’ 또는 ‘執’와는 달리 이미 몸에서 떨어져나간 하나의 물체가 된 상태임을 알 수 있다. 또 [예21]를 보면 중산왕이 도망을 다닐 때 어떤 두 사람이 창을 들고 그 뒤를 따르며 지켜주는 내용으로, 창을 든 행위보다는 경호를 위해 뒤따르는 행위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창을 든 행위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해칠 목적

4) 《전국책》에서 ‘挈’는 ‘들다’ 의미 외에 ‘붙잡다, 잡아끌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 「山東之卒，被甲冒冑以會戰，秦人捐甲徒程以趨敵，左挈人頭，右挾生虜。」(韓策一) (산동의 병졸은 갑옷을 입고 싸우지만, 진나라 병사는 갑옷을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적에게 달려들어 왼손으로는 적의 머리를 거머쥐고(붙잡고), 오른손으로 포로를 휘어잡습니다.)

이 아닌 단순히 뒤따르기 위한 수단으로 힘주지 않고 가볍게 든 상태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듯 ‘掣’는 《전국책》에서 가벼운 물건을 한손으로 드는 행위에 사용된 어휘라 할 수 있다.

5) 揭

‘揭’는 《전국책》에 2회 출현하는데, ‘들다’의 의미로는 1회 사용되었다.⁵⁾

[예22] 於是乘其車，揭其劍，過其友曰：“孟嘗君客我。”〈齊策四〉
(이에 그 수레를 타고 그 검을 쳐들고는 친구들 옆을 지나며 말하였다.
“맹상군이客的 禮로 나를 대우해 주네.”)

[예22]를 보면 맹상군이 손님의 예우에 맞게 풍원을 대해준데 대해 풍원이 신이 나서 칼을 높이 쳐들며 친구들에게 으스대는 내용으로, 《전국책》에서 ‘揭’는 사물을 높이 드는 행위동사로 볼 수 있다. ‘揭’는 《전국책》중 ‘들다’의 의미장안에서 ‘사물을 높이 쳐드는 방식’을 취하는 어휘이다.

2. 《전국책》 中의 ‘들다’ 어휘 비교분석

《전국책》 中 ‘들다’ 어휘는 ‘들다’의 의미장 안에서 공통의미소⁶⁾를 갖는 반면, 각기 다른 의미소를 보유함으로써 어휘 간에 의미의 차이를 보인다. 이들 어휘 간의 차이점을 정리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을 통해, 《전국책》 中의 ‘들다’ 어휘는 손사용 방식, 드는 방법, 뒤에 놓이는 사물의 무게, 어휘간의 결합유무와 결합하는 물체의 종류에 따라 각 어휘 간에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5) ‘揭’는 《전국책》에서 ‘들다’ 의미 외에 ‘드러나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예] 「臣聞之，脣揭者其齒寒，願大王之熟計之。」(韓策二)(신이 들으니 입술이 드러나면 이가 시리다 하였으니 대왕은 깊이 헤아려보시기 바랍니다.)

6) 중국학술용어로는 ‘義素’라고 한다.

〈표 1〉 《전국책》 中의 ‘들다’ 어휘 비교분석표

구분 \ ‘들다’ 의미장	提	舉	執	挈	揭
손사용 방식	한손	두 손	한손/두 손	한손	한손
드는 방법	가볍게 들다	들다	단단히 잡고 들다	가볍게 들다	높이 들다
사물의 무게	輕	輕/重	輕	輕	輕
어휘결합有無	提挈	×	×	提挈	×
조합단어	비수, 주전자(간장 단지)	큰칼, 소매, 그물, 깃털, 술잔, 백금, 신체부위(발)	예물, 칼, 채찍	물병, 창, 주전자(간 장단지), 신체(목)	검(劍)

먼저, 손사용 방식을 보면 ‘提’, ‘挈’, ‘揭’는 한손을 사용하고, ‘舉’는 양손을 주로 사용한다. ‘執’는 한손과 양손 사용이 모두 가능한데, 《전국책》에서 ‘執’ 뒤에 놓인 사물을 보면 ‘예물, 칼, 채찍’으로 모두 한손 사용이 가능한 물체이나, 단어의 특성상(예물 같은 경우 조심하기 위해 두 손을 사용함.) 양손 사용 또한 가능하다. 드는 방법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提’와 ‘挈’는 가볍게 드는 동작이고, ‘執’는 단단히 붙잡고 드는 동작이며, ‘揭’는 높이 드는 동작이다. ‘舉’는 드는 방법에 구분 없이 사용된다. 또 뒤에 놓이는 사물의 중량으로 보면, ‘提’, ‘舉’, ‘執’, ‘挈’, ‘揭’는 모두 가벼운 사물을 들 때 사용가능한데, 그중 ‘舉’는 무거운 물체를 들거나 힘을 써서 물건을 들 때도 사용가능하다. 각 어휘 간의 결합유무를 살펴보면, ‘提’와 ‘挈’만 결합가능하고, 나머지는 단독으로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들다’ 어휘들이 취하는 단어를 살펴보면, ‘舉’와 ‘挈’가 가장 폭넓은 단어를 취하고 있다. 각 어휘가 취하는 단어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提’는 비수, 주전자(간장단지) 등 비교적 한손으로 가볍게 들 수 있는 단어를 취하고, ‘舉’는 큰칼, 소매, 그물, 깃털, 술잔, 백금 등 다양한 사물의 단어를 취하며, 아울러 발 등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단어도 취한다. ‘執’는 예물과 칼, 채찍을 목적어로 취하는데, 이는 물체의 특성상 조심스레 잡고 들어야 되는 예물과 단단히 붙들어야 하는 칼 및 채찍을 목적어로 취함으로써 ‘執’ 어휘가 갖는 의미의 특징을 살리고 있다. ‘挈’는 ‘提’와 마찬가지로 가볍게 들 수 있는 물병, 창, 주전자(간장단지) 등을 목적어로 취하고, 신체부위인 목을 손으로 들 때도 사

용한다. 마지막으로 ‘揭’는 높이 드는 방식으로 목적어를 취하는데, 《전국책》에서는 검(劍)을 목적어로 취하고 있다.

Ⅲ. ‘들다’ 어휘 역사적 변천에 관한 小考

1. ‘提’의 역사적 변천

‘提’는 《說文》에 ‘提, 挈也.(들다)’⁷⁾라 하고, 《段注》에 ‘挈者, 縣持也. 攜則相竝, 提則存高下.’(‘提’는 ‘공중에 들다’의 의미를 지닌다. ‘攜’는 ‘나란히 드는 것’이고, ‘提’는 ‘상하로 드는 것’이다.)라 하여 ‘물건을 손으로 드는 것’을 말한다.

《시경》에서 ‘提’는 행위동사로 사용될 경우 ‘신체의 일부분을 잡아끌다’⁸⁾의 의미를 지닌다. 《좌전》과 《맹자》에는 행위동사로서의 의미가 보이지 않으며, 《논어》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선진시기에 ‘提’가 ‘물건을 들다’의 의미로 사용된 경우는 아래와 같다.

- [예23] 範蠡乃左提鼓, 右援枹, 以應使者. 《國語·越語下》
(범려는 이에 왼손에 북을 들고 오른손엔 북채를 잡고 사자에게 응답했다.)
- [예24] 平公提觴而起爲師曠壽, 反坐而問. 《韓非子·十過》
(평공은 술잔을 들고 일어나 사광을 위해 축수(건배)하고는 돌아와 앉으며 물었다.)
- [예25] 提刀而立, 爲之四顧, 爲之躊躇滿志, 善刀而藏之. 《莊子·養生主》
(칼을 든 채 일어나서 사방둘레를 살펴보며 잠시 머뭇거리다가 만족한 기분으로 칼을 닦아 챙겨 넣습니다.)

선진시기에 ‘提’가 ‘들다’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예23]~[예25]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북’, ‘술잔(술 포함)’, ‘칼’ 등 한손으로 들 수 있는 가벼운 물건들이 주로 사용된다.

7) 《說文解字今釋》, 湯可敬 撰, 嶽麓書社, 1697쪽.

8) 《毛詩·大雅·抑》: “匪面命之, 言提其耳.”(“직접 명령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귀를 잡아 끌어야 하네.”)

양한시기의 ‘提’는 그 용법과 대상에서 선진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아래는 양한시기와 위진남북조 시기의 예문들이다.

- [예26] “提桴鼓立軍門.” 《史記·田叔列傳》
(북채와 북을 들고 군문에 서다.)
- [예27] 且提一匕首入不測之疆秦. 《史記·刺客列傳》
(비수를 들고 예측할 수 없는 강국 진나라로 가다.)
- [예28] 高祖罵之曰: “吾以布衣提三尺劍取天下, 此非天命乎!” 《論衡·命祿》
(고조가 그를 꾸짖으며 말했다. “내가 일개 백성으로서 삼척의 검을 들고 천하를 얻었으니 이는 천명이 아니던가!”)
- [예29] 斑白不提挈. 《史記·循吏列傳》
(반백의 노인들은 짐을 드는 일이 없어졌다.)
- [예30] 每率爾提酒脯就衛, 箕踞相對彌日. 《世說新語·任誕》
(= (온공은) 수시로 술과 육포를 들고 위군장에게로 가서 다리를 쭉 뻗고 앉아 하루 종일 마주 대했다.)

양한시기에 ‘提’는 ‘들다’의 의미로 사용될 경우, 주로 북, 술잔, 칼 또는 그와 관련된 물건을 목적어로 갖는다. [예26]을 보면 북과 북채를 목적어로 갖고, [예27]과 [예28]은 칼과 검을 목적어로 갖는데, 이는 ‘提’의 목적어가 선진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이시기의 ‘提’는 [예29]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동의어인 ‘挈’와 자주 같이 쓰여 ‘同義連文’을 이루며, 때론 문장에 고정된 형식으로 출현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史記·張耳陳餘列傳》에 보면 “況以兩賢王左提右挈, 而責殺王之罪.(두 현명한 왕이 좌우고 손잡고 연왕을 죽인 죄를 묻다)”라 하여 “左提右挈”의 형태로 쓰인다. 이러한 고정구문은 위진남북조 시기⁹⁾를 거쳐 현대까지 이어져 내려온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오면 ‘提’ 뒤에 놓이는 사물이 선진·양한시기보다 좀 더 확대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예30]을 보면 술 외에 육포가 목적어로 사용되었다.

‘提’는 ‘들다’의 의미장에서 선진·양한시기를 거쳐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르기까지

9) 《文心調龍·麗辭》: 贊曰: “體植必兩, 辭動有配. 左提右挈, 精味兼載. 炳燦聯華, 鏡靜含態. 玉潤雙流, 如彼珩珮.”

큰 변화 없이 ‘한손으로 가벼운 물건을 드는 행위’에 사용된 어휘로 보인다.《시경》을 포함한 각종 문헌에 ‘들다’의 의미로 사용된 예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때, ‘提’는 제한적 목적어(북, 술잔, 칼 등)를 갖는 사용범위가 넓지 않은 어휘로 볼 수 있다. 다만 후대로 넘어오면서 그 목적어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확대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향후 후속작인 唐代~現代에 이르는 ‘들다’ 어휘의 연구과제로 남겨놓기로 한다.

2. ‘擧’의 역사적 변천

‘擧’는 《說文》에 ‘對擧也.’¹⁰⁾라 하여 ‘(두 손으로) 마주 들다’의 의미를 지닌다. 선진시기에 ‘擧’는 가장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들다’ 의미를 지니는 동사이다.

- [예31] 鍾鼓既設, 擧酬逸逸. 《詩經·小雅·賓之初筵》
(풍악을 벌여놓고 술잔을 들고 왔다갔다하네.)
- [예32] 三之日於耜, 四之日擧趾. 《詩經·豳風·七月》
(일월엔 쟁기 등을 손질하고 이월엔 발같이 시작되네.)
- [예33] “寡君聞君親擧玉趾, 將辱於敝邑, 使下臣犒執事.” 《左傳·僖公26年》
(저희 군주께서는 임금께서 친히 귀한 발걸음을 해서 미천한 곳에 이르신다는 것을 들으시고는 小臣으로 하여금 벼슬아치들을 위로케 했습니다.)
- [예34] 弈者擧棋不定, 不勝其耦. 《左傳·襄公25年》
(바둑을 두는 자가 바둑알을 들고 (확실히) 정하지 못하면 상대를 이기지 못한다.)
- [예35] 齊侯擧矢曰: “有酒如澠, 有肉如陵.” 《左傳·昭公12年》
(제나라 군주가 화살을 들고 말하기를 “술은 승수(澠水)의 물과 같이 많고, 고기는 언덕만큼 있다.”라고 하였다.)
- [예36] “擧燭者, 尙明也; 尙明也者, 擧賢而任之.” 《韓非子·外儲說左上》
(“등불을 들라고 하는 것은 밝음을 존중하는 것이다. 밝음을 존중하는 것은 현명한 사람을 천거해서 임용한다는 것이다.”)
- [예37] 吾力足以擧百鈞, 而不足以擧一羽. 《孟子·梁惠王上》
(나의 힘은 삼천 근을 들기에는 충분하지만 새털 하나를 들기에는 부족하다.)

10) 《說文解字今釋》, 湯可敬 撰, 嶽麓書社, 1714쪽.

상기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진시기의 ‘舉’는 무게의 경중이나 사물의 종류를 막론하고 손으로 물건을 드는 행위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어휘이다. 선진시기에 ‘舉’는 술잔([예31]), 바둑알([예34]), 화살([예35]), 촛불([예36]), 깃털([예37]) 등 상당히 다양한 목적어를 갖는다. 또 ‘舉’는 손으로 물건을 드는 것 외에 사람의 신체를 들 때도 사용된다. [예32]를 보면 ‘舉趾’는 발을 들어 발을 가는 동작으로 볼 수 있고, [예33]을 귀한 발을 들어 걷는다는 뜻으로 ‘귀한 발걸음’을 의미한다.

양한시기에 ‘舉’는 목적어를 수반함에 있어 선진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여전히 각종 사물 및 신체부위를 드는데 사용된다.

- [예38] “暮見火舉而俱發”. 《史記·孫子吳起列傳》
 (“날이 저물어 횃불이 들리거든 일제히 활을 쏘도록 하라.”)
- [예39] 妻使妾舉藥酒進之. 《史記·蘇秦列傳》
 (부인은 첩에게 약술을 들러 남편에게 바치게 하였다.)
- [예40] 舉築樸秦皇帝, 不中. 《史記·刺客列傳》
 (축을 들어 진시황을 쳤으나 맞지 않았다.)
- [예41] 公車令兩人共持舉其書, 僅然能勝之. 《史記·滑稽列傳》
 (공거의 관리 두 사람이 같이 들어야 겨우 들 수 있다.)
- [예42] 豫且曰: “夜半時舉網得龜.” 《史記·龜策列傳》
 (예저가 말하기를 “한밤중에 그물을 올려 거북을 잡았습니다.”라고 하였다.)
- [예43] 舉首奮翼, 口不能言, 請對以意. 《史記·屈原賈生列傳》
 (머리를 들고 날개를 떨며 입으로는 말을 못하니 뜻으로써 대답하노라.)
- [예44] 上問車中幾馬, 慶以策數馬畢, 舉手曰: “六馬.” 《史記·萬石張叔列傳》
 (황제가 수레의 말이 몇 마리인가를 물으니, 석경은 채찍으로 말을 다 켜 다음 손을 들어 말하기를 “여섯 마리입니다.”라고 하였다.)
- [예45] 手舉一鈞, 以一鈞則平, 舉之過一鈞, 則躓仆矣. 《論衡·命祿》
 (30근을 들 수 있는 손으로 30근을 들면 적당하지만 30근을 넘게 들면 넘어진다.)
- [예46] 螻蟻行於地, 人舉足而涉之. 《論衡·幸偶》
 (땅강아지와 개미가 땅 위를 기어갈 때 사람이 발로 밟고 지나간다.)
- [예47] 舉鼎用力, 力由筋脈. 《論衡·書虛》

(정을 들어 올릴 때는 힘을 쓰게 되는데 힘은 근육에서 나온다.)

[예48] 若士者舉臂而縱身，遂入雲中。《論衡·道虛》

(선비가 어깨를 들고 몸을 놀려 마침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

[예49] 有水火之難，惶惑恐懼，舉徙器物，精誠至矣，素舉一石者，倍舉二石。

《論衡·儒增》

(수재나 화재가 났을 때 당황하고 겁이 나서 물건을 들어 옮긴다면 정신이 강해져서 본래 돌 한 개를 드는 사람이지만 그 배인 돌 두 개를 든다.)

[예50] 厲鬼舉楫而掎之，斃於壇下。《論衡·祀義》

(온갖 귀신들이 노를 들고 그를 때려 제단아래에서 죽였다.)

양한시기에 ‘舉’는 ‘들다’의 의미장안에서 선진시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 시기에 ‘舉’는 주로 두 손을 사용해 물건을 들거나, 큰 힘을 들여 물건을 들 때 주로 사용된다. [예39], [예40], [예41], [예42]는 모두 두 손을 이용해 물건을 드는 경우이고, [예45], [예47]은 큰 힘을 들여 물건을 드는 경우이다. 또 이시기에는 ‘舉首’([예43]), ‘舉手’([예44]), ‘舉足’([예46]), ‘舉臂’([예48]) 등 신체부위를 드는 행위의 결합구조가 많이 보이는데, 이는 ‘舉’의 중요한 특징가운데 하나로, 이 중 ‘舉手’ 등은 현대한어로 오면서 하나의 단어로 정착한 경우라 할 수 있다.

문헌을 통해 위진남북조시기에 ‘舉’의 목적어범주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예51] 枚臯應詔而成賦，子建援牘如口誦，仲宣舉筆似宿構。《文心調龍·神思》

(매고는 조(詔)를 받기가 무섭게 부(賦)를 지어 올렸으며, 조식은 목간을 잡기만 하면 암송하듯 술술 써 내려갔고, 왕찬은 붓을 들면 초고를 정서하듯 매듭을 지었다.)

[예52] 謝景重時爲長史，舉板答曰：“故宣武公黜昏暗，登聖明，功超伊、霍。”

《世說新語·言語》

(사경중은 당시 (태부의) 표기장사로 있었는데 홀(笏)을 들고 대답하기를 “옛 선무공은 암우한 친자를 내쫓고 현명한 친자를 등극하시게 하였은즉 그 공이 이윤, 곽광보다 뛰어납니다.”라고 하였다.)

[예53] 太傅善其對，因舉酒勸之。《世說新語·言語》

(태부는 그 대답에 만족해하며 술을 들어 사경중에게 권하였다.)

- [예54] 王徐舉首曰：“此年少，非唯圍棋見勝。”《世說新語·方正》
(왕도는 천천히 머리를 들면서 말하기를 “이 젊은이는 오직 바둑만 잘 두는 게 아니오.”라고 하였다.)
- [예55] 範馳報張，張便束帶造之。遂舉觴對語，賓主無愧色。《世說新語·方正》
(범예장이 서둘러 장현에게 알리자 장현은 곧 허리띠를 매고 그에게 갔다. 드디어 두 사람은 술잔을 들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주객 모두 어색한 기색이 없었다.)
- [예56] 褚因舉手答曰：“河南褚季野。”《世說新語·雅量》
(저공은 손을 들어 “하남의 저계야”라고 대답했다.)
- [예57] 孫舉頭曰：“使君輩存，令此人死！”《世說新語·傷逝》
(손자형은 머리를 들고 말했다. “그대들은 살아 있으면서 이 사람을 죽게 하다니!”)
- [예58] 舉翅萬餘裏，行止自成行。(曹操詩〈卻東西門行〉)
(수만리 날개를 들고 날면서 쉬엄쉬엄 제 길을 간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오면 ‘舉’의 목적어범주가 선진·양한시기에 비해 많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데, [예51]과 [예52]를 제외한 나머지 예문은 크게 두 가지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舉’가 술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물을 드는데 사용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의 신체부위나 금수의 몸 부위를 드는데 사용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 선진·양한시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들다’ 의미의 ‘舉’는 위진남북조 시기로 오면서 그와 조합되는 단어의 종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이 시기에 ‘舉’ 뒤에 주로 놓인 어휘는 사람의 신체부위나 금수의 몸 부위 및 술(그와 관련된 사물 포함) 등이 사용된다. 이는 현대한어 ‘舉’의 용법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현대한어에서 사용되는 이합사형태인 ‘舉手’, ‘舉杯’ 등은 이러한 역사적 연원(淵源)을 가지고 있다하겠다.

3. ‘執’의 역사적 변천

‘執’는 《說文》에 ‘捕罪人也.’¹¹⁾라 하여 ‘죄인을 체포하다’의 의미를 지닌다. 《시

11) 《說文解字今釋》，湯可敬 撰，嶽麓書社，1421쪽.

경》을 비롯한 선진문헌에서 ‘執’는 ‘들다’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는데, 예문을 보면 아래와 같다.

- [예59] 伯也執殳，爲王前驅。《詩經·衛風·伯兮》
(내 님은 긴 창 들고 임금님 위해 앞으로 나아가네.)
- [예60] 君子陽陽，左執簧，右招我由房，其樂只且。《詩經·王風·君子陽陽》
(즐거운 우리 님은 왼손에 생황 들고 오른손으로 나를 방으로 부르니 정말 즐겁네.)
- [예61] 女執懿筐，遵彼微行，爰求柔桑。《詩經·邶風·七月》
(여인네들은 움푹한 대광주리 들고 오솔길 따라 부드러운 뽕잎 따러 간다네.)
- [예62] 執其鸞刀，以啓其毛，取其血膋。《詩經·小雅·信南山》
(방울 달린 칼 들고 털은 벗겨내고 피와 기름 받아내네.)
- [예63] 左手執龠，右手秉翟。《詩經·邶風·簡兮》
(왼손엔 피리 들고 오른손엔 쟁깃 들었네.)
- [예64] 其左執鞭弭，右屬囊鞬，以與君周旋。《左傳·僖公23年》
(그때는 왼쪽에는 매와 활을 들고 오른쪽에는 화살자루와 칼집을 차고서 군주와 같이 달려 나가겠나이다.)
- [예65] 文子執戈逐之曰：“國之存亡，天也。童子何知焉。”《左傳·成公16年》
(범문자가 창을 들고 그를 내몰며 말하기를 “나라의 존망은 하늘에 달려 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그러느냐?”라고 하였다.)
- [예66] 使行人執榼承飲，造於子重。《左傳·成公16年》
(사자에게 술통을 들고 술잔을 받들어 자중에게로 가게 했다.)
- [예67] 狄虺彌建大車之輪，而蒙之以甲，以爲櫓，左執之，右拔戟。《左傳·襄公10年》
(적사미는 큰 수레의 바퀴 하나를 세워 꺾데기를 썩워 방패로 삼고, 왼손에는 그것을 들고 오른손으로는 창을 빼들었다.)
- [예68] 邾子執玉高，其容仰，公受玉卑，其容俯。《左傳·定公15年》
(주나라 군주가 옥을 너무 높이 들어 그의 몸이 올라가고, 정공이 옥을 받는 자세가 너무 낮아, 몸이 아래로 구부러졌다.)
- [예69] 然且七十說而不受，身執鼎俎爲庖宰，昵近皆親，而湯乃僅知其賢而用之。《韓非子·難言》
(일흔 번이나 유세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몸소 술과 도마를 들고 가 요리사가 되어 친해지고 나서야, 탕왕은 비로소 그의 현명함을 알고 그를 등용했다.)

위 예문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선진시기의 ‘執’는 ‘들다’의 의미장 안에서 매우 폭넓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執’ 뒤에 놓이는 사물 또한 매우 다양하여 악기(〔예 60, 63]), 무기(〔예 59, 62, 64, 65, 67]), 생활용품(〔예 61, 69]), 술통(〔예 66]), 예물(〔68]) 등 매우 다양한 것들이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선진시기의 ‘執’와 ‘擧’는 모두 다양한 사물을 목적으로 취하는 ‘들다’ 어휘로, 두 어휘 뒤에 놓이는 사물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다만 ‘擧’가 ‘執’보다 의미역¹²⁾이 넓다고 할 수 있는데, ‘擧’는 사물의 중량이나 방식에 구애되지 않고 손으로 사물을 들어 올리는 보편적인 동작에 해당하는 어휘라면, ‘執’는 손으로 사물을 잡아드는 형태의 어휘라 하겠다. 또 ‘執’와 ‘擧’는 신체부위를 동반할 경우 그 의미가 다른데, ‘擧’는 그 신체부위를 드는 행위가 되지만, ‘執’는 그 신체부위를 잡는 행위가 된다. 예를 들면, ‘擧玉趾’ 《左傳·僖公26年》는 ‘발을 들다’의 의미지만, ‘執其手’ 《論語·雍也》는 ‘그 손을 잡다’의 의미를 갖는다.

양한시기와 위진남북조 시기의 예문을 보면,

- [예 70] 曹沫執匕首劫齊桓公. 《史記·刺客列傳》
(조말이 비수를 들고 제환공을 협박하였다.)
- [예 71] 弓高侯執金鼓見之, 曰: “王苦軍事, 願聞王發兵狀.” 《史記·吳王濞列傳》
(궁고후는 징과 북을 들고 왕을 보며 말하였다. “왕은 군사일로 괴로워하는데 군사를 일으킨 경위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 [예 72] 傳語曰: “周公執贄下白屋之士.” 謂候之也. 《論衡·語增》
(전하는 말에 “주공은 폐백을 들고 가서 누추한 집에 사는 선비에게 (자신을) 낮추었다”고 한다.)
- [예 73] 左手持刀尺, 右手執綾羅. 〈孔雀東南飛〉
(왼손에 한자 되는 칼을 잡고 오른손에 능리를 들었네.)
- [예 74] 吾懼董狐將執簡而進矣. 《世說新語·方正》
(나는 동호가 죽간을 들고 찾아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오.)
- [예 75] 則嘗夜夢執丹漆之禮器, 隨仲尼而南行. 《文心調龍·序志》
(밤 꿈에 검붉은 칠을 한 제사그릇을 들고 공자님을 따라 남쪽으로 가기도 했다.)

12) 중국학술용어로는 ‘義域’라 하는데, 어휘의 사용범주를 의미한다.

[예70]~[예73]을 보면, ‘執’는 사물을 들 때 손으로 단단히 잡고 있는 행위가 포함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예70]을 보면 조말이 제환공을 협박하기 위해 비수를 단단히 붙잡고서 위협하는 내용이고, [예71]은 정과 북을 손으로 잡아 들고 있는 상황이며, [예72]는 주공이 귀한 예물을 조심스레 붙잡아 들고 선비를 찾아간 내용이다. 또 [예73] 역시 비단을 손으로 잡고 있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양한시기에 오면, ‘執’는 선진시기에 비해 ‘들다’ 의미로 사용되는 횟수가 많이 줄어든다. 《전국책》과 《사기열전》의 ‘擧’와 비교해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는데¹³⁾, 폐쇄적이고 제한된 문헌자료를 통해 고찰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선진시기와 비교해 보면 상당히 사용빈도가 낮아진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르러 더욱 가중되는데, ‘執’는 후대로 올수록 점점 ‘들다’ 의미보다는 ‘잡다’의 의미로 무게중심이 이동한다. [예74]와 [예75]를 보면 ‘죽간과 그릇을 든다고 하였으나, 그 의미중심은 이미 드는 행위에서 손에 잡고 있는 행위로 옮겨간 것을 알 수 있다.

4. ‘挈’의 역사적 변천

‘挈’는 《說文》에 ‘縣持也.’¹⁴⁾라 하고, 《段注》에 ‘縣者,系也。(挈)謂縣而持之也。(縣)은 ‘매다’의 의미이다. (‘挈’)는 ‘묶어 매어 지니다’를 일컫는다.’라 하였다.

선진시기에 ‘挈’는 ‘들다’의 의미를 지닌다. ‘挈’는 《시경》과 《논어》, 《맹자》에는 보이지 않는데, 그 외 선진문헌의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예75] 雖有挈餅之知, 守不假器. 《左傳·昭公7年》
(두레박을 들어 쓸 줄 아는 지혜만 있어도 지키고 기물을 빌려주지 않는다.)

[예76] 若挈裘領, 屈五指而頓之, 順者不可勝數也. 《荀子·勸學》
(가죽옷의 깃을 들고 다섯손가락을 구부려 그것을 쓸어내리면 (모든 털들이) 따르는 것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다.)

13) 《전국책》에서 들다 ‘擧’는 11번 출현한데 반해 ‘執’는 3번 출현하고, 《사기열전》에서 들다 ‘擧’는 11회 출현한데 반해 ‘執’는 2회 출현한다.

14) 《說文解字今釋》, 湯可敬 撰, 嶽麓書社. 1693쪽.

[예77] 或令孺子懷錢挈壺甕而往酤，而狗逐而核之，此酒所以酸而不售也。《韓非子·外儲說右上》

(어떤 사람이 어린 자식을 시켜 돈을 가지고 술병을 들고 가서 술을 사 오게 하면, 개가 달려와 그 아이를 물은 것이니, 이것이 술이 쉬고 팔리지 않는 이유요.)

[예78] 救火者，令吏挈壺甕而走火，則一人之用也。《韓非子·外儲說右下》

(불을 끌 경우 벼슬아치에게 물 항아리를 들고 불길 속으로 들어가게 하면, 이는 한 사람을 부리는 것이다.)

선진시기에 ‘挈’는 주로 가벼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사용된다. [예75]~[예77]을 살펴보면 모두 가볍게 들 수 있는 물건들로, 이 경우 ‘挈’는 ‘提’와 서로 호환이 가능하다.¹⁵⁾ [예78]을 보면 ‘물 항아리를 들다」挈壺甕」라고 하였는데, ‘挈’ 뒤에 ‘주전자 또는 단지(壺)가 놓인 점을 감안해보면 이 역시 들리는 대상이 그다지 무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예79] 夫一石之重，一人挈之，十石以上，二人不能舉也。《論衡·效力》

(1석(120근)의 무게는 한 사람이 들 수 있지만, 10석 이상은 두 사람도 들 수 없다.)

[예80] 斑白不提挈，僮子不犁畔。《史記·循吏列傳》

(반백이 된 노인은 짐을 들지 않게 되었고, 어린아이들은 밭을 갈지 않게 되었다.)

양한시기에 ‘挈’는 ‘들다’의 의미장 안에서 여전히 가벼운 물체를 들 때 사용된다. [예79]를 보면 10석(1200근)의 무게를 드는 것에 ‘擧’를 사용한 것에 반해, 1석(120근)의 무게를 드는 데 ‘挈’를 사용함으로써 상대적으로 ‘挈’가 ‘擧’에 비해 가벼운 것을 드는데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양한시기에 오면 [예80]을 통해 알 수 있듯이, ‘挈’는 ‘提’와 자주 같이 사용된다. [예79]를 보면, ‘挈’와 ‘提’가 같이 쓰여 ‘들다’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 경우 ‘提’가 먼저 놓이는 것이 일반적인 용례이다.

문헌자료를 통해, ‘挈’는 ‘들다’의 의미보다는 ‘붙잡다’의 의미로 더 많이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史記》에 보면, 「淮陰侯挈其手。」〈淮陰侯列傳〉(회음

15) 王鳳陽, 《古辭辨》, 吉林文史出版社, 675쪽.

후가 진희의 손을 잡다)와 「左挈人頭。」(張儀列傳)(왼손으로 적의 머리를 붙잡다)라 하여 ‘挈’가 모두 ‘붙잡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사기열전》의 경우만 보더라도 5회 출현에 4회가 ‘붙잡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또 양한시기에 ‘掣’와 ‘提’는 ‘붙잡다’ 의미에서도 자주 같이 쓰이는데 (예: 左提右掣 《史記·張耳陳餘列傳》(좌우로 손잡다)), 이는 위진남북조 시기를 거쳐 현대로 오면서 하나의 사자성어로 자리 잡게 된다.¹⁶⁾

위진남북조 시기에 이르면, ‘掣’는 문헌에 출현하는 빈도가 급속히 감소한다. 《삼국지》에 ‘掣壺餐’ 구문이 보이긴 하나, 주로 고정형식에 출현하고 단독 행위동사로 쓰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위진남북조 시기의 문헌 중, 《세설신어》와 조조시에는 보이지 않으며 《삼국지》와 《문심조룡》에 ‘左提右掣’의 형태로 각1회씩 출현할 뿐이다.

5. ‘揭’의 역사적 변천

‘揭’는 《설문》에 ‘高舉也.’¹⁷⁾라 하여 ‘높이 들다’의 의미를 지닌다. 선진문헌에는 《시경》과 《장자》에 그 예가 보이고, 《국어》, 《논어》¹⁸⁾, 《좌전》, 《맹자》, 《한비자》에는 출현하지 않는다. ‘揭’는 대체로 사물을 높이 드는 행위에 사용되나, 때론 《설문》의 본의에서 말하는 높이 드는 행위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드는 행위에 사용되기도 한다.

[예81] 匏有苦葉, 濟有深涉. 深則厲, 淺則揭. 《詩經·邶風·匏有苦葉》
(박에는 마른 잎이 달려 있고 제수에는 깊은 나루가 있네. 깊으면 옷 입은 채 건너고 얕으면 옷셔를 들고 건너네.)

[예82] 然而巨盜至則負匱揭篋擔囊而趨. 《莊子·胠篋》
(그러나 큰 도둑은 오면 궤짝을 지고 상자를 들고 주머니를 메고 달아난다.)

16) ‘左提右掣’는 본래 ‘좌우로 (손)붙잡다’ 또는 ‘좌우로 잡아끌다’의 의미에서 인신(引伸)되어 현대한어에서는 ‘서로 부조하다’의 의미로 쓰인다.

17) 《說文解字今釋》, 湯可敬 撰, 嶽麓書社, 1714쪽.

18) ‘揭’는 《논어》에 1회 출현하는데, 본문에서 언급한 《시경》의 예를 인용하고 있다.

[예81]을 보면 옷이 물에 젖을까봐 옷섰을 높이 추켜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예82]는 도둑이 상자를 드는 행위로 이는 일반적인 드는 행위로 볼 수 있다.

양한시기에 이르면 ‘揭’의 사용빈도가 많아져 ‘검’이나 ‘옷자락’ 등 다양한 사물을 드는데 사용된다.

- [예83] 於是乘其車，揭其劍，過其友。《戰國策·齊策四》
(이에 그 수레를 타고 그 검을 쳐들고는 친구들 옆을 지나다.)
- [예84] 其北則盛夏含凍裂地，涉冰揭河。《史記·司馬相如列傳》
(그 (동산의) 북쪽은 한여름에도 얼음을 머금어 땅이 갈라져, 빙판 위를 걸을 때 옷자락을 추켜들고 하수(河水)를 건넵니다.)
- [예85] 出邑門，道飛其鵠，徒揭空籠，造詐成辭，往見楚王。《史記·滑稽列傳》
(순우곤은) 성문을 나서자 도중에 그 고니를 날려 보내고 빈 새장만 들고는 거짓말을 꾸며 초나라 왕을 뵈러 갔다.)
- [예86] 斬木爲兵，揭竿爲旗。《賈誼〈過秦論〉》
(나무를 베어 무기를 삼고 장대를 높이 들어 깃발로 삼다.)
- [예87] 或問揚子雲曰：“力能扛鴻鼎·揭華旗，知德亦有之乎？”《論衡·效力》
(어떤 사람이 양자운에게 “힘있는 자는 큰 솥을 질 수 있고 큰 깃발을 들 수 있는데, 지식과 도덕이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83]~[예87]을 보면 ‘揭’는 ‘검, 옷, 새장, 장대, 깃발’ 등 다양한 사물을 목적어로 취하는데, 이는 이시기에 ‘揭’와 조합가능한 사물의 범주가 상당히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위 예문 중, [예85]를 제외한 나머지 예문은 모두 사물을 비교적 높이 들 때 ‘揭’가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예86]의 ‘揭竿’은 장대를 높이 들어 봉기의 표시로 삼는 행위로, 현대한어에 ‘揭竿而起’(봉기하다)라는 사자성어의 연원이 된다.

위진남북조시기에 오면, ‘揭’는 여전히 ‘들다’의 의미로 사용된다.

- [예88] 全寫則揭篋，傍探則探囊。《文心調龍·指瑕》
(전부를 표절하면 상자를 들고 간 것이고, 일부분만 표절하면 주머니를 뒤진 것이다.)

[예89] 揭其不賞之寶. 《抱樸子·吳失》

(그 수많은 보물을 들다.)

[예90] 揭竿獨往. (傅亮 《演愼》)

(장대를 들고 홀로 가다.)

《문심조룡》([예88])과 《포박자》([예89])는 위진남북조 시기를 대표하는 문헌으로 ‘揭’가 상자나 보물을 드는 행위에 사용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예90]을 보면, 傅亮은 南朝·宋의 大臣으로 그의 저술 《演愼》에서 양한시기와 마찬가지로 ‘揭竿’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위진남북조시기에 ‘揭’는 사물을 높이 들거나 일반적으로 드는 행위에 사용된 어휘임을 알 수 있다.

현대한어에서 ‘揭’는 ‘벗기다, 떼다, 뜯다’의 의미로 위진남북조 시기에 사용된 ‘揭’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揭’는 唐宋시기에도 ‘들다’의 의미로 사용되는데(예: 「揭鼓在隊前」 《通典》), ‘揭’가 ‘들다’의 의미장에서 ‘벗기다’의 의미장으로 이동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차후 문헌연구를 통해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현대한어에서 ‘벗기다’의 의미를 지닌 ‘揭’는 후대에 생겨난 의미임을 밝혀둔다.¹⁹⁾

6. ‘들다’ 어휘 역사적 변천 小結

선진시기부터 위진남북조 시기까지 ‘들다’ 어휘의 변천상황을 정리해 보면 아래 <표 2>와 같다.

<표 2>를 보면 ‘提’는 선진부터 위진남북조 시기까지 의미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이시기에 ‘提’는 ‘들다’의 의미로 활발히 사용되지는 않았으나, 위진남북조 시기로 오면서 그와 조합되는 단어의 범주가 늘어난다. 양한시기의 문헌에 보이는 ‘左提右挈’의 구문은 현대까지 사용이 이어지는 사자성어이다.

‘擧’는 선진시기에 ‘들다’의 의미로 사용된 가장 보편적인 단어이다. 양한시기에는 양손을 이용하거나 힘을 써서 드는 행위에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이시기에는 신체 부위를 드는 행위에 사용된 구문이 자주 보이는데, ‘擧手’ 등은 고정형식을 이루어 현대한어에서 이합사의 형태로 사용된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오면 조합되는 단어의

19) 王鳳陽, 《古辭辨》, 吉林文史出版社, 674쪽.

범주가 크게 축소되어 주로 술, 술잔, 신체부위를 나타내는 단어들을 목적으로 갖는다.

〈표 2〉 ‘들다’ 어휘 역사적 변천 표

어휘 \ 시기		선진	양한	위진남북조
提	의미	가볍게 들다	가볍게 들다	가볍게 들다
	조합단어	북, 술잔, 칼 등	변화 없음	확대
	분포상황	少	少	少
	고정구문		提挈, 左提右挈	左提右挈
舉	의미	들다	들다 (양손을 이용하거나 힘을 써야 하는 행위에 주로 사용됨)	들다
	조합단어	술잔, 바둑알, 화살, 촛불, 깃털, 신체부위 등	술, 악기, 그물, 햇불, 노 등 (신체부위에 사용이 많아짐.)	감소 (술, 술잔, 신체부위 등)
	분포상황	多	多	감소
	고정구문		舉首, 舉手	舉頭, 舉手
執	의미	붙잡고 들다	단단히 붙잡고 들다	붙잡다
	조합단어	악기, 무기, 생활용품, 술통, 예물 등	감소	감소
	분포상황	多	감소	감소
	고정구문			
挈	의미	가볍게 들다	갑볍게 들다	가볍게 들다
	조합단어	단지, 용기, 옷깃 등	감소	감소
	분포상황	少	감소	감소
	고정구문		提挈, 左提右挈	左提右挈
揭	의미	들다/높이 들다	들다/높이 들다	들다/높이 들다
	조합단어	옷섬, 껌, 껌 등	검, 옷자락, 새장, 장대, 깃발 등	상자, 보물 등
	분포상황	少	多	少
	고정구문	揭竿	揭竿	揭竿

‘執’는 선진시기에 다양한 사물을 목적어로 갖는 매우 활발히 사용된 ‘들다’ 어휘로 보인다. 양한시기와 위진남북조 시기로 오면서 그 사용범주가 축소되고, 의미 또한 ‘들다’에서 ‘잡다’의 의미로 많이 사용된다.

‘挈’는 선진·양한시기에 주로 가벼운 물체를 들 때 사용된 어휘이다. 위진남북조 시기에 오면 그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고, 단독동사로 사용되기보다는 고정구문형태에 가끔 출현할 뿐이다.

‘揭’는 선진시기에서 위진남북조 시기까지 대체로 높이 드는 행위에 해당하는 어휘이다. 현대에는 다양한 단어들을 목적어로 사용하였다. 현대한어에서 ‘揭’는 ‘벗기다, 떼다, 뜯다’의 의미를 지니는데, 이는 의미소 변이에 따른 의미장 이동현상으로 볼 수 있다.

현대한어에서 ‘들다’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拈’과 ‘拿’는 위진남북조 시기까지 문헌상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출현시기와 출현을 통한 ‘들다’ 의미장 구성원들의 교체와 변화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IV. 나오는 말

이상 본문에서 《전국책》 중의 ‘들다’ 어휘들의 의미와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이들 어휘의 비교분석을 통해 어휘 간의 의미상 차이점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 각 어휘들이 선진시기부터 위진남북조 시기까지 변화하는 양상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각 어휘들은 공통의미소를 지니면서 시대에 따라 의미소(義素)와 의미역(義域)에 약간씩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어휘의 의미가 변화하는 주된 요인으로 어휘가 지니는 부가의미²⁰⁾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깊게는 의미항의 의미장 이동현상을 초래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執’는 선진시기에 매우 활발하게 사용된 ‘들다’의 어휘이나 양한시기로 오면서 그 사용이 줄고 위진남북조 시기로 오면서 의미소의 중심이 ‘잡다’의 의미에 더 놓이면서 ‘들다’ 의미장에서 ‘잡다’ 의미장으로 이동한 경우라 하겠다. 의미역과 의미소 변이에 따른 의미장 이동현상은 한어사 어휘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20) 부가의미는 의미항이 갖는 다양한 의미소(義素)를 뜻한다.

텍스트를 통한 어휘연구는 시공간상의 제약으로 각 의미장에 속하는 일정어휘의 누락이 불가피하다. 가령 ‘擎’은 고대중국어에 사용된 ‘들다’ 의미장에 속하는 어휘이나, 《전국책》에 보이지 않음으로 본문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하지만 향후 ‘들다’ 의미장에 대한 전반적인 통사적 연구를 진행할 경우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본문에 빠진 어휘를 포함하여 육조이후의 ‘들다’ 어휘에 관한 연구는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다.

【參考文獻】

- 黃暉, 《論衡校釋》, 中華書局, 1990年.
 段玉裁[清], 《說文解字注》, 上海古籍出版社, 1995.
 蔣紹愚, 《古漢語詞彙綱要》, 北京大學出版社, 1992.
 劉向[漢], 《戰國策》, 上海古籍出版社, 1998.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5.
 譚代龍, 〈義淨譯經身體運動概念場詞彙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5.
 湯可敬, 《說文解字今釋》, 嶽麓書社, 1997.
 黃信愛, 〈戰國策詞彙研究〉, 北京大學博士學位論文, 2003.
 劉義慶撰, 餘嘉錫譯註, 《世說新語箋疏》, 中華書局, 2007.
 王鳳陽, 《古辭辨》, 吉林文史出版社, 1993.
 汪維輝, 《東漢-隨常用詞演變研究》, 南京大學出版社, 2000.
 司馬遷, 《史記》, 中華書局, 1982.
 劉義慶撰 安吉煥譯, 《世說新語》上, 中, 下, 明文堂, 2006.
 羅竹風 主編,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5.
 楊伯峻, 《春秋左傳注》, 中華書局, 2009.
 張萬起, 《世說新語譯注》, 中華書局.
 劉勰, 《文心雕龍》, 中華書局.
 《國語》, 上海古籍出版社, 1978.
 《韓非子集解》, 中華書局, 2006.
 《十三經注疏》, 中華書局.

【中文提要】

本文對《戰國策》中出現的有關'拾'義的詞彙進行了研究。本文主要有兩個方面的研究。第一，對《戰國策》中的'拾'義詞彙加以說明了意義和特征，然後通過它們的意義比較分析說明了它們意義之間的差異。第二，本文說明了從先秦到魏晉南北朝時期'拾'義詞彙的變化過程。

《戰國策》中的'拾'義的詞彙有'提'，'舉'，'執'，'挈'，'揭'。'提'，在《戰國策》中有'拾'義時，賓語就有匕首，茶壺等，'舉'有長刀，酒杯，羽毛，領袖，白金，身體部位等，'執'有禮物，刀子，鞭子等，'挈'有水瓶，茶壺等，'揭'有劍等。這5個詞彙在意義上有差異，它們具有共同義素和不同的義素。

從歷史的角度看，'提'在意義上沒有什麼變化。'舉'，在拾義上先秦兩漢時期是一個比較普遍使用的常用詞彙而到後來使用範圍越來越小。'執'，在先秦時期比較普遍使用而到六朝它的意義中心轉移到抓住義上。'挈'，它的使用範圍不太廣。它經常和'提'在一起使用。'揭'，從先秦到六朝就有高舉義。

這時期，在拾義上還沒出現'拾'和'拿'。

【主題語】

拾，詞彙，意義，義素，歷史